

최순실 “조작으로 몰지 않으면 다 죽는다”

국정조사 3차 청문회

귀국 전 고영태에 위증 지시
박영선, 녹음파일 공개 파장
김상만 “주사제 ‘그분’께 전달”
‘세월호 7시간’ 집중 추궁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3차 청문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비선 시술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대통령 자문의인 받았던 김상만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주사제를 직접 전달하고 투약하는 법도 다 알았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주사제를 ‘그분’ 손에 쥐어줬다”며 “설명도 다 드렸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순실·최순득 자매의 이름으로 박 대통령의 취임 전후 항산화제, 태반주사, 고용량 비타민 주사제 등을 처방한 인물이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실제 주사제가 박 대통령에게 주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질문하자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분 손에 쥐어줬다”며 박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이 의원이 ‘간호장교한테 준 것이냐’고 재차 묻자 “간호장교 아니고 그분”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음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김씨는 청와대 출입 시 인적사항을 적지 않은, 이른바 ‘보안순남’으로, 자문의에 임명되기도 전에 청와대 관저로 들어가 진료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만씨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신보라 전 청와대 간호



대통령 입가에 피멍자국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와 김영재의원 원장 등 증인들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박 대통령 필러 시술 의혹에 대한 발언을 듣고 있다. 증인석 앞줄 왼쪽부터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김원호 전 대통령경호실 의무실장,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 /연합뉴스

장교는 “내가 오전 중에 가금액을 갖다 드리러 관저를 갔다 왔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의료용 가금을 사용한 것은 필러 시술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20분 간격으로 지시했다”고 밝혀왔다. 세월호 7시간 중 오후 3시부터 5시15분까지는 박 대통령이 중대본 방문을 지시하고 머리손질을 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나머지 약 5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올바른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현 중국대사)은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의 “(세월호 당일) 오전 10시

15분에 대통령이 자신에게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드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김한정의 의원은 박 대통령 얼굴에 멍자국이 선명한 언론보도 사진을 제시했고 김영재 원장은 “필러 시술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직전 지인을 통해 고영태씨에게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하도록 충용한 것으로 보이는 육성이 공개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이날 공개한 최씨와 지인의 전화통화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따르면 최씨는 “나랑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러면 가장 관계 남품했

다고 그러지 말고 ... 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연결을 해줘서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라)”고 말했다. 또 “고원기획(최씨가 고씨와 함께 설립한 회사)은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걸 좀 하려고 하려다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라고 덧붙였다. 다른 녹취록에서 최씨는 이성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 죄를 덮어씌우도록 지시했다. 박 의원 측은 “최씨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조작품’으로 몰고 가야 한다고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며 “본인이 지시한 대로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반박 불가 증거로 증인 압도...‘청문회 스타’ 박영선

2차 청문회에선 ‘모르쇠’ 버티던 김기춘 시인 끌어내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활약이 눈에 띈다. 3차례 청문회 동안 박 의원이 결정적 증거 등을 제시하며 청문회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14일 열린 3차 청문회에서 지난 10월30일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측근으로 활동했던 고영태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맞추기’ 등을 위한 지침을 내리는 녹취파일 2개를 공개하면서 최씨의 증거 인멸 혐의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녹취파일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재의원 김원장과 이임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교수에게 “비슷한 지침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김 원장과 이 교수 모두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진행된 2차 청문회에서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

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짓말’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당시 ‘최순실을 정말 모르느냐’라는 의원들의 잇단 추궁에도 ‘모르냐’로 일관하던 김 전 실장은 박 의원이 제보받은 영상을 공개하자 “나이가 들어서...”라며 고개를 떨구었다. 채널 A 방송은 김 전 실장이 이날 청문회가 끝나고 귀가 한 뒤 아내를 붙잡고 “박영선 등에게 크게 당했다”고 한탄했다고 보도할 정도로 박 의원의 결정적 ‘한방’으로 2차 청문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파국 치닫는 새누리

지도부, 윤리위원 8명 친박계 충원에 기존 위원 전원 사퇴

내일 원내대표 경선, 주류 정우택-비주류 나경원 대결 주목

새누리당 내용이 깊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을 당 윤리위원으로 충원한 데 반발해 기존 윤리위원들이 모두 사퇴하자 당내 주류와 비주류는 14일 또다시 충돌했다. 친박계는 기존 윤리위 구성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박(비박근혜)계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을 주도한 김무성·유승민 의원을 출당시키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중도 성향의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정말 어리둥절한 일”이라면서 “주위에서도 정신 나갔다고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친박계인 원우철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제가 듣기로는 원내 윤리위 구성 자체가 처음부터 균형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이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주류와 비주류를 균형있게 맞춰야겠다는 당 지도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12일 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위원회에 박대출·이우현·곽상도·이양수 의원과 원외 인사 4명 등 모두 8명을 추가 임명하

기로 의결했다. 이들 위원은 모두 주류 친박계로 분류된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다음날인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리성 제고 등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의견을 통일해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에만 급급하다면 그런 윤리위원회는 틀리니까에 더 되느냐”며 사퇴를 선언했다. 다른 윤리위원도 사퇴를 결의했다. 심각한 내용을 반영하듯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는 약 70~80여 명의 의원만이 참석했다. 전체 소속 의원(128명)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석률이다. 비박계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퇴배경 설명과 재선임을 요구하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이 의원총회에는 ‘친박 핵심’으로 불리는 서청원·최경환·홍문종·이장우 의원 등이 모두 불참했다. 한편 16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주류 친박(친박근혜)계 정우택 의원(4선, 충북 청주시 상당구)과 비주류 나경원 의원(4선, 서울 동작구)이 겨루게 됐다. 정 의원은 정책위의장 후보인 이현재 의원(재선, 경기 하남시)을 러닝메이트로, 나 의원은 정책위의장 후보인 김세연 의원(3선, 부산 금정구)을 러닝메이트로 해서 경선에 입한다. /박지경기자 jkpark@

野 “황대행, 국회 나와 로드맵 밝혀야”

20·21일 대정부질문 불출석 입장 반박...황, 정의장 예방

야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압박하며 견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마치 기다린 사람처럼 대통령 행사부터 하고 있다”며 “황교안 대행체제는 단기 과도관리체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황 총리는 대통령 탄핵 가결과 함께 사실상 정치적 불신임을 받은 상태”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어 “박근혜 표 정책의 계속 추진이나 경제부총리 거취의 일방 처리에 이어 심지어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조차 않겠다는 태도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의원-비상대책위원 연석회의에서 “국회 대정부 질문 출석이 어렵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은 국정 공백 사태와 관련, 총리의 책임 있는 육성을 듣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정 협의체

에 대해 “국민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구성원 자체의 성격상 구성이 참으로 난망하다”며 “당분간은 어렵다”고 밝혔다. 하원제 청와대 정부수석은 이날 황 권한대행이 오는 20~21일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전달했지만 결국 퇴짜를 맞았다. 하원제 정부수석은 대통령 탄핵에 따라 황 권한대행체제에서의 정부 현안을 지원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황교안 체제’를 통크게 인정한 만큼 황 권한대행이 반드시 국회에 나와 국정 로드맵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잘 받들고 국정 전반에 잘 반영하기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장은 “정자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황 권한대행이 잘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경매

대표 1522·3396



병원

감정가 140억, 최저가 78억

목포시 석현동 / 4층 / 대지 3659평 건물 2522평



상가 주택

매매가 2억 7천만

동구 산수동 / 2층 / 대지 35평 건물 32평 / 55m 도로접



첨단 상가 15억 월세 1000만원

경매	골프장	감정가 110억, 최저가 110억
	광양시 성황동 / 3층 / 대지 3935평 건물 2667평 / 50타석 / 실외스크린 12름 / 중마초등학교 서측	
	수익형 빌딩	감정가 24억 4천만, 최저가 17억
	순천시 풍덕동 / 10층 / 대지 106평 건물 690평 / 일반상업지역 / 54호실 / 코너 / 수익률 14.7%	
매	수익형 상가 건물	감정가 10억, 최저가 10억
	동구 금남로 / 총 4층 / 대지 118평 건물 305평 / 중심상업지역 / 금남로4가역 부근	
매	모텔	감정가 9억 4천만, 최저가 6억 6천만
	북구 중흥동 / 총 8층 / 대지 91평 건물 340평 / 일반상업지역 / 코너 / 광주역 앞 위치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상업중	
매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매	수익형 주택 부지	매매가 12억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 답 1098평 /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 주변 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모텔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매	임대 수익형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매	연립주택 및 빌라 부지	매매가 4억 3천만
	영암군 영암읍 춘암리 / 전 1513평 / 1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 / 월출산 조망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 - 1114 김 주 성